

국내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김명숙(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어재영(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이성엽(아주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는 '문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의 성인문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성인문해교육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해', '문해교육' 등의 키워드로 198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발표된 성인문해 관련 연구는 92건이었다. 매해 소폭으로 발표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추세를 띄었다. 성인문해 연구는 교육관련 학술지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연구주제는 7가지 유형으로 내용 및 방법을 다루는 것이 가장 많았고, 현황 및 실태, 개념 및 인식, 국외 및 국내사례, 정책 및 제도, 역할 및 발전과제, 문해역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순으로 사용되었고, 연구대상은 이론 및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해학습자, 문해교사 또는 전문가 순이었다.

성인문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성인문해 연구 증가에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문해 개념의 확대가 사회 각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의 핵심은 문해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라 할 수 있었다. 넷째, 성인문해 연구대상은 그동안 이론 및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해교육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해교육, 연구동향, 기초능력, 평생교육

I. 서론

전통적으로 문해교육이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배천웅, 1989)으로 인식되었다. 문자를 알게 되는 것을 '글을 뎨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글을 뎨다'는 것의 의미는 글을 알기 이전과는 다르게 문자로 된 지식의 습

* 제1저자: 김명숙(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msook-kim@hanmail.net)

† 교신저자: 어재영(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stngks@korea.kr)

‡ 공동저자: 이성엽(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hicoach@ajou.ac.kr)

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는 단순히 한글 읽기 차원이 아니다. 기본적인 인권이며, 사회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의 의미로 해석(한국문해교육협회, 2005)되고 있다.

오혁진, 허준(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0년대 국가차원에서 사회교육 정책의 하나로 ‘문맹퇴치’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196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국가차원의 후속교육이 전무했고, 민간영역에서 야학 등이 인적, 물적 기반의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차원에서 문해교육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생겨났다. 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문해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층에 대부분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들인 다문화 계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양명희, 2013).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문해교육을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였다. 현재는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한글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작되면서 문해교육은 교육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 등 전반적으로 확대 발전 양상을 띄고 있다.

정지웅, 김지자(2013)는 이러한 문해교육 제도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문맹퇴치 운동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후는 세계문해운동에 부응한 상향식 문해 운동기, 2000년대 이후는 문해교육 제도화 정착기로 나누고 있다. 신미식(2010)은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문해교육(문자해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다고 보았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교육의 제도화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공공영역에서의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문해교육, 시민성, 시민활동, 재취업, 소외계층 등 여러 대상과 영역 중에서 문해교육은 국민기초교육으로 국가의무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다.

문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최근 사회적인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국립국어원(2008)은 2008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또한 2014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인구를 1~4수준으로 나누고 성인문해능력을 조사하였다. 2015년 9월 5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1’의 비율은 6.4%로 약 2,642,142명이 해당된다.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2’의 비율은 6.0%를 차지하는데 약 2,475,199명에 이른다.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를 통해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일상생활 문제해결은 미흡한 ‘수준3’의 비율은 16.2%이며 약 6,678,807명에 해당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4 이상'은 71.5%로 약 29,555,37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는 '수준4 이상'은 제외하고 '수준1'에서 '수준3'까지 28.6%에 달하는 11,796,148명이나 된다.

2000년 이후 '문해'라는 용어가 평생교육이 아닌 타학문에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의 전체를 조망해보는 것은 향후 성인문해교육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6장에서 문해교육은 '성인을 위한', '성인의' 문해교육만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의 문해교육 지원사업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문해교육의 연구는 유아동 정규과정의 문해교육 연구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고,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게재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16년까지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문해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돌아보고,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 문해교육의 발전방향과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해교육의 개념

1964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종래의 3R 개념에 기능문해 개념이 등장했고, '유엔의 10개년 발전계획 비문해 퇴치 선언'이 채택되었다(양명희, 2013). 종래의 '읽기, 쓰기, 셈하기(reading, writing, arithmetic)'라는 문해교육의 3R이라는 개념에서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로 그 범위가 확대된 개념이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문해교육의 개념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문해교육은 종래에 사용되고 있던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사회적·문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됨으로써 좀 더 확대이해의 여지가 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국립특수교육원, 2009)에 따르면 과거의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매우 축소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에 이르러서 그 의미는 매우 확장되었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수준까지 '비문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지웅, 김지자(2013)는 문해에 대한 용어가 완전비문해, 기초문해, 반문해, 생활문해, 컴

퓨터문해, IT문해 등의 관련 용어로 점차 확대되어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해교육은 넓은 의미로 모든 국민을 문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활동이라고 보았다. 양명희(2013)는 문해의 개념 변화와 확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 문해교육의 역사와 국제적인 비문해 퇴치의 노력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해교육 개념과 관련하여 최운실(2006)은 성인기초능력 개념을 모형도로 제시하였다. 성인기초능력을 3R's 문해력, 학습능력, 핵심역량생애능력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3R's 문해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뜻하고, 2단계 학습능력은 자기주도 학습력, 학습방법의 학습, 학습동기, 성과제고 학습력을 말한다. 3단계 지식기반사회 신 기초핵심역량은 사회성 기술, 정보화능력, 고차적 정신기능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성 기술은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인관계, 리더십, 집단역동으로, 정보화능력은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분석력, 미래 대응력이며, 고차적 정신기능은 사회 환경 탐구력, 미래예측 및 대처능력 등으로 설명하였다. 정대용, 기영화(2010)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문해능력은 사회적 적응 기제임과 동시에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읽고 쓰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보았다. Hanemann(2015)은 문해의 실용성과 다양성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 문화, 의사소통, 지식 생산, 비판적 사고, 의견,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문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해교육의 의미는 전 생애차원의 수직적 범위와 기초문해, 생활문해, IT문해 등 수평적 범위의 문해로 확장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측면에서 발표된 문해교육 연구들이 아직까지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통합된 문해교육이 아닌 성인의 문맹퇴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해교육의 필요성도 일부에서 제기(엄훈, 2012) 되었으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무게가 성인 비문해자에 기울어져 있다. 문해교육의 개념이 확장되고 그 영역이 다양해지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해교육은 문자해득교육을 포함한 사회·경제·문화 등 전체 영역의 기초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적 교육활동이다.

2. 한국 문해교육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시작은 개화기 또는 해방 이후부터라고 보는 경향(노병윤, 2015; 임송자, 2014; 오혁진, 허준, 2011)이 대부분이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 본격적으로 문맹퇴치라는 명분으로 미군정기 정책을 계승하여 공민학교, 국문강습소 등을 통해 문해교육이

전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문해교육은 오히려 잠정기를 겪고, 다시 야학을 통해 재생기와 활성화시기를 맞았다. 근현대 시기에 ‘문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지만, 그 시기까지도 문맹퇴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새로운 부흥기에는 ‘문해’라는 용어가 적극 사용되고 있지만 그 시기도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전체 한국 문해교육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그것이 민→관→민·관 형태로 주도적인 역할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표 1> 한국 문해교육 변천과정

구 분	한국의 문해교육	한국 야학운동사
개화기 (1876~1910)	- 서재필 독립운동 - 황성신문	-야학의 탄생 및 성장 (1898~1918)
일제강점기 (1910~1945)	- 조선어학회의 활동 - 조선일보의 국문 보급 운동 -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 - 강습회 및 야학의 민중교육 - 서당의 문해교육	- 야학의 시대(1919~1931) - 저항과 변질(1932~1945)
해방이후 (1945~1960)	- 군정 당시의 국문 보급 사업 - 공민학교의 국문 보급 사업 - 민간단체의 문해교육운동 - 조선어학회의 한글운동 - 정부의 문맹퇴치 5개년 사업(제1차~제5차) - 정부지원단체의 문해교육사업 -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문해교육사업 - 마을문고의 독서교육사업	- 해방과 혼란(1945~1950) - 전쟁과 재건(1950~1960)
근현대 (1960~1990년대)	- 잠정기 - 재생기 - 활성화기	- 가난의 탈출(1960~1970) - 노동 야학의 시대(1980년대) - 모색의 시대(1990년대)
새로운 부흥기 (2000년대)	-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학력인정제 도입 - 평생교육 6진 분류 - 국가차원의 문해교육 지원사업 - 미디어매체에 문해교육 등장	

출처 : 한국의 문해교육 변천사. 한국의 문해교육((사)한국문해교육협회, 2005), 한국 야학운동사(천성호, 2009)를 재정리함

2006년부터 교육부가 공모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문해교육 지

원이 제기 되었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시한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을 보면, 학력보완교육과 성인 문자해득교육이 매우 비중 있게 두 꼭지나 차지하고 있다. 평생교육 6대 영역 분류는 국가가 문해교육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라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만 219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제도적으로도 문해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학력인정이 아닌 찾아가는 문해교육까지 포함한다면 공식적인 집계 가 어려울 정도로 민·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문해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해교육 운영자에 대한 조건도 제도화 되면서 문해교육의 체계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유희교실을 활용한 초등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문해교육 예산 확대 등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해교육 제도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문해 개념이 지니고 있는 확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3. 연구동향 연구의 분석틀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기초 영역이다. 그러므로 성인문해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구안하기 위하여 먼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평생교육학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의 분석틀을 살펴보았다.

곽삼근, 최윤정(2005)은 평생교육 학습자, 평생교육자 및 평생교육 담당,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및 현장, 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평생교육 국가 비교연구, 평생교육 패러다임/이념성, 평생교육 이론 및 개념, 평생교육 철학 및 역사, 평생교육학의 연구방법/학문연구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김진화, 고영화, 성수현(2007)은 이론-실천 및 정책-연구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최은수 외(2009)는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한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에서 지역별 분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다. 오혁진, 김미향(2010)은 시대, 실천유형, 내용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교육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향후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 그간의 한국 사회교육사의 연구동향 및 성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2> 한국 평생교육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의 분석틀

저 자(연도)	연구제목	내 용
곽삼근, 최윤정(2005)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	① 평생교육 학습자 ⑥ 평생교육 국가 비교연구 ② 평생교육자 및 평생교육 ⑦ 평생교육 패러다임/이념성 담당 ⑧ 평생교육 이론 및 개념 ③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⑨ 평생교육 철학 및 역사 ④ 평생교육기관 및 현장 ⑩ 평생교육학의 연구방법/학문 ⑤ 평생교육제도 및 정책 연구
김진화, 고영화, 성수현(2007)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이론- 실천- 정책- 연구
최은수 외(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① 연구시기 ③ 연구주제 ② 연구대상 ④ 연구방법
오혁진, 김미향(2010)	한국 사회교육사의 연구동향 및 성과 검토	시대- 실천유형- 내용
김원경, 전제아(2011)	한국 노인교육 연구 동향	① 연구발표 ③ 연구대상 ② 연구방법 ④ 연구주제
이석진, 기영화, 김남숙(2012)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	① 학문적 배경 ④ 연구방법 ② 연구주제 ⑤ 연구목적 ③ 연구대상
김영석(2013)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 분 석(2000년-2013년)	① 연구 주제 및 목적 ③ 질적 연구 유형 ② 연구 참여자 유형 및 선정 ④ 자료수집 방법 이유(기준) 제시 여부 ⑤ 타당도 확보 방안
곽삼근, 박현옥, 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	① 대학평생교육의 개념 및 ④ 대학평생교육 경영 인식패러다임 ⑤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② 대학평생교육의 역할 및 ⑥ 대학평생교육 성인학습자 발전과제 ⑦ 대학평생교육 직무담당자 ③ 대학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윤옥환(2015)	평생교육 20년(1995-2014) 연구동향 분석	①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 ② 평생교육기관 ③ 평생교육대상
이지연(2015)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국내외 성인교육학의 최근 연구동향 고찰	① 저자특징 ② 연구주제 ③ 연구방법

김원경, 전제아(2011)는 2000년 이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교육 연구 동향을 연도별, 연구분야별,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이석진, 기영화, 김남숙(2012)은 학문적 배경,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목적으로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 논문 동향을 분석하였다. 김영석(2013)은 「평생교육학연구」와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주제 및 목적, 연구 참여자 유형 및 선정 이유(기준) 제시 여부, 질적 연구 유형, 자료수집 방법, 타당도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곽삼근, 박현옥, 김현주(2014)는 1982년부터 2012년까지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제를 대학평생교육의 개념 및 인식패러다임, 대학평생교육의 역할 및 발전과제, 대학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대학평생교육 경영,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학평생교육 성인학습자, 대학평생교육 직무담당자 등 총 7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윤옥환(2015)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평생교육 20년간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평생교육 실천연구영역,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대상의 세 가지 분석준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지연(2015)은 국내외 성인교육학의 최근 연구동향 고찰을 위해 학술지를 분석하며, 제1저자의 특성,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분석준거로 하고 있었다.

성인문해와 관련해서 전체 경향을 살펴보는 연구동향 분석 논문을 학술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인기초능력 개념 모형과 연구동향 분석으로 최운실(2006)이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국내외 연구들을 유네스코 및 OECD와 우리나라의 KEDI, KRIVET 등을 중심으로 성인기초능력 개념 모형 및 측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기초능력의 구성요소와 개념 모형의 설정, 다양한 모형 설정 및 전략 개발 구안의 필요성, 확대된 새로운 개념의 성인기초능력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측면에서 성인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외 성인문해 연구 중 분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 연구는 Bhola(1990), Mikulecky(2003), McKenna & Fitzpatrick(2004), Nicholas Gara(2012), Hanemann(2015) 등의 연구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는 McKenna & Fitzpatrick(2004)와 Hanemann(2015)의 연구이다. McKenna & Fitzpatrick(2004)은 지속 가능한 성인문해위원회 구축을 위해 국제동향 보고서에서 사회 경제적 개요, 성인 문해력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 성인문해 정책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규제 체계, 1990년, 1996년, 2001년 재정 수준, 커리큘럼, 보고서 형태와 평가 시스템과 같은 품질 보증 시스템, 정책, 교과 과정과 연구에 사용되는 문해에 대한 개념화, 교사 준비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7가지 분석틀로 각 국가의 성인문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Hanemann(2015)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

서를 분석해 ‘생애 문해(lifelong literacy)’에 대한 분석들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생애 문해(lifelong literacy)’에 대한 분석들 세 가지는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위한 평생학습 과정 활용 능력 등의 문해, 생활 전반에 걸친 학습과정의 문해, 평생학습 시스템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개혁의 총체적인 집합의 일부분으로써의 문해이다.

이상의 평생교육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의 분석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주제 또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들이다.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곽삼근, 최윤정, 2005)과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곽삼근, 박현옥, 김현주, 2014)은 연구주제를 유형화하였다.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김진화, 고영화, 성수현, 2007), 한국 사회교육사의 연구동향 및 성과 검토(오혁진, 김미향, 2010), 평생교육 20년(1995-2014) 연구동향 분석(윤옥환, 2015)은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연구주제와 내용을 핵심으로 연구연도별 추이를 깊이 분석하며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사용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일반적인 연구계획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들이다. 한국 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최은수 외, 2009), 한국 노인교육 연구 동향(김원경, 전제아, 2011),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이석진, 기영화, 김남숙, 2012),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국내외 성인교육학의 최근 연구동향 고찰(이지연, 2015)은 3~5가지로 대분류하여 분석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 분류기준을 정해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을 조망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했다. 연구의 전체맥락을 조망하는 것은 향후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성인문해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연구주제 또는 연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보다는 문해에 대한 개념화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성인문해에 대한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일반화할 수 있는 선행연구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 분석들에 성인문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들을 구안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선정 기준 및 절차

연구를 위한 자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활용하여 <표3>과 같이 4차에 걸쳐 자료선정 작업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1차 작업은 ‘문해’, ‘문해교육’ 키워드로 등재후보학술지를 검색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 각각의 검색 결과를 모두 합하고, 중복 결과치를 제외하였다. 1차 검색 결과로 유아, 아동, 학생에 대한 연구,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및 전략 탐색’ 등 문해교육 연구로 볼 수 없는 연구, ‘문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저자 연구물까지 본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구물도 검색되어 자료에 대한 선택적 정리가 필요하였다. 2차 선정 작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현장의 주대상인 ‘성인, 여성, 노인, 장애, 다문화’와 문해교육의 내용인 ‘건강, 정보’에 대한 문해도 포함하기 위해 7개의 키워드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7개의 키워드 검색 결과를 모두 합하고 중복 결과치를 제외하고, 2차 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3차 선정 작업은 문해와 관련된 연구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선정 작업에 대한 목록과 2차 선정 작업에 대한 목록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자료선정 작업을 연구진이 각각 진행해보고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뒤에 110편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110건에서 유아, 아동, 학생에 대한 연구, 문해의 주제로 볼 수 없는 연구는 제외하고 최종 92건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3차 선정 작업부터는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 분석틀에 따른 1차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1차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연구대상 등 키워드를 뽑아 코딩화하고, 세부 분석기준을 <표 4>와 같이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세부 분석기준으로 여러 차례 분석하면서 기준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반복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지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여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지를 선정한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한다.

둘째, 제목과 주제어에 ‘문해’ 또는 ‘문해교육’이 포함된 연구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이고,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향후과제 제시가 목적이다. 따라서 ‘문해’ 또는 ‘문해교육’ 키워드가 들어간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셋째, 현행 학교교육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해교육 대상인 성인,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문해교육 연구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유아, 아동, 학생에 대한 문해 연구는 제외하였다.

<표 3> 사이트별 검색 키워드 결과와 선정 및 분석절차

선정 및 분석절차	검색사이트	키워드	등재/ 등재후보지	키워드	등재/ 등재후보지
1차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문해	332건	문해교육	93건
	국회도서관	문해	380건	문해교육	57건
2차 : 1차 키워드 결과내 검색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문해+성인	48건	문해교육+성인	42건
		문해+여성	9건	문해교육+여성	12건
		문해+노인	11건	문해교육+노인	5건
		문해+장애	49건	문해교육+장애	10건
		문해+다문화	18건	문해교육+다문화	3건
		문해+건강	11건	문해교육+건강	1건
		문해+정보	43건	문해교육+정보	13건
	국회도서관	문해+성인	25건	문해교육+성인	13건
		문해+여성	8건	문해교육+여성	3건
		문해+노인	5건	문해교육+노인	3건
		문해+장애	25건	문해교육+장애	4건
		문해+다문화	7건	문해교육+다문화	1건
		문해+건강	17건	문해교육+건강	1건
		문해+정보	18건	문해교육+정보	2건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 작업 결과치 합하여 비교 분석하며 중복, 유아동, 학생 대상 연구, 오류 검색결과물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92건을 선정 • 1차 분석으로 키워드를 뽑고 세부 분류기준안 마련 • 세부 분류기준으로 재분석하면서 연구자별로 수정 기준안 검토하여 분류기준 확정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다시 분석하고 확인하며 반복적인 분석 실시 				

<표 4>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틀

분석틀	내 용
발표연도	1989년 ~ 2016년
학술지 분야	①사회과학(④교육 ⑥장애 ⑦기타 분야) ②인문과학 ③의약학 ④어문학 ⑤농학 ⑥공학
연구주제	①개념 및 인식 ②역할 및 발전과제 ③정책 및 제도 ④국외 및 국내사례 ⑤현황 및 실태 ⑥내용 및 방법 ⑦문해역사
연구방법	①양적 ②질적 ③문헌 ④혼합(양적+질적, 문헌+질적, 양적+문헌)
연구대상	①문해학습자(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인) ②문해교사 또는 전문가 ③이론 및 정책

넷째, 건강과 정보문해를 포함하였다.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이슈로 인한 건강 문해, 인터넷, 디지털 시대로 인한 정보 문해로 문해교육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문해교육에 대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확장'으로 설명되어지는 법적인 조항은 문해교육 내용의 확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과 정보 문해를 다루는 연구물 또한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 정보의 키워드도 검색하였다.

다섯째, 반복비교 분석법이다. 키워드로 검색된 목록을 모두 비교하고 관련 연구물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자료를 선정하였다. 세부 분류기준을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유형화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평생교육학 분야의 선행 연구동향의 분석틀을 준거로 일관적인 연구계획 틀인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연구발표연도, 학술지 분야로 대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성인문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에는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지 않고 연구자 2명이 선정 자료를 살펴보며 각 내용에 따른 분류 키워드를 뽑아 코딩을 하였다. 그런 후 각 연구자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에 연구자 2명이 상의하여 세부 분류기준안을 만들고 다른 연구자 1인이 분류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절차의 신뢰도와 분석틀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문해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전공 교육학 박사 3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A박사는 자료선정 기준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B박사는 발표연도와 분야를 묶어 연구발표로 제시한 기준을 연구영역으로 바꾸어 볼 것을 권했다. C박사는 다른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 중 A와 B의 의견을 반영해 분석틀을 보완하였다. 연구진은 세부 분류기준을 여러 차례 반복 논의한 결과 성인문해 특성을 반영해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연구발표연도

'문해'라는 키워드로 등재된 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연구물은 1989년부터 검색되었다. 본 연구는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표된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연도를 확정하지 않고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발표된 연구물을 선정하여 연도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나. 학술지 분야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분야로 세부 분류기준을 ①사회과학, ②인문과학, ③의

약학, ④어문학, ⑤농학, ⑥공학 6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분석 후 본 연구의 동향에 맞게 사회과학은 교육, 장애, 기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이해교육 학술지의 경우 복합학으로 분류되었지만 교육에 포함하였다.

다. 연구주제

선정된 연구물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곽삼근, 박현옥, 김현주, 2014)과 한국 노인교육 연구동향(김원경, 전제아, 2011)에서 사용했던 7가지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분석을 하였다. 그 뒤 성인문해의 특성에 맞는 준거가 필요해 재유형화 하였다. 재유형화한 7가지 연구주제는 ①개념 및 인식, ②역할 및 발전과제, ③정책 및 제도, ④국외 및 국내사례, ⑤현황 및 실태, ⑥내용 및 방법, ⑦문해역사이다.

라. 연구방법

선정된 연구물의 연구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 분석기준은 4가지이다. ①양적, ②질적, ③문헌, ④혼합연구(양적+질적, 문헌+질적, 양적+문헌)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마. 연구대상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물을 구분한 다음, 다시 묶어 코딩하고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코딩화 작업을 통해 ①문해학습자, ②문해교사 또는 전문가, ③이론 및 정책, 3가지 유형으로 분석기준을 확정하고, 반복적인 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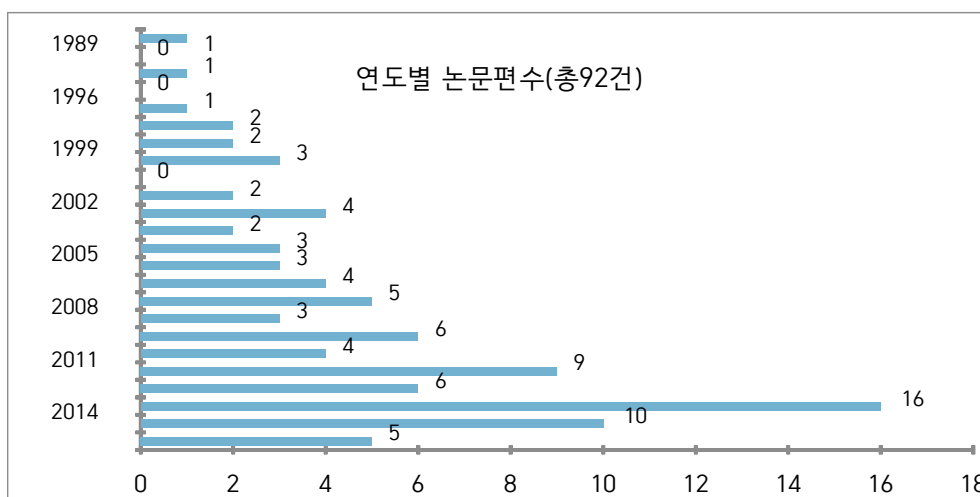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성인문해 연구발표연도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연도별로 발표된 성인문해 연구 현황은 [그림1]과 같다.

UN은 1990년을 '세계 문해의 해'로 정하고 1989년 ~ 1990년 개최되는 모든 회의의 주제를 '문해와 문해교육'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199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 일련의 학술사업을 준비(한국교육개발원, 1989)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1차년도)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문해' 키워드를 사용하

여 학술지에 게재된 첫 번째 연구물은 배천웅(1989)의 ‘성인 문해교육의 방향’으로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되는 「한국교육」에 발표되었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문해’라는 용어가 확대되었고, 학술지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도 같다. 이는 UN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림 1] 연도별 논문편수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매해 소폭으로 연구가 증가되었다. 특히, 2014년은 학술지 유형별로도 다양했고, 다른 해에 비해 급격한 증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의 원인은 첫째,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2014. 2. 2. 설맞이 특집방송으로 KBS 도전골든벨 <늦깎이 한글학생, 행복골든벨>과 2014. 7. 7. MBC 다큐 스페셜로 해나루 시민학교 <내 나이가 어때서>가 방송되었다. 이들 방송은 한 달 전부터 예고편 방송으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면서 방송사가 앞 다투어 성인문해교육을 다루었다.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적극적인 성인문해교육지원을 들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문해능력을 조사해 문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문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세종대왕의 꿈>이라는 캠페인을 제작해 방영하고, 문해의 달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내용에 문해의 달 시화전 참관을 의무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14년에는 1,156명, 2015년에는 1,794명으로 초등학교학력인정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타학문분야의 관심도 높아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2. 학술지 분야

성인문해를 주제로 발표된 학술지는 총52종이었다. 연구가 발표된 학술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계열로 54개(58.7%)였으며, 22종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22종의 학술지 중 「평생교육학연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비교교육연구」에 6개, 나머지 학술지는 1~3개가 발표되었다. 사회과학 분야 중 교육, 장애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 8.7%, 장애 분야와 의약학 분야가 각각 8.7%, 12%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해’를 다루기 시작했음을 알게 해준다.

<표 5> 성인문해 연구 발표 학술지유형

단위: N(%)

연도별	①사회과학			②인문과학	③의약학	④어문학	⑤농학	⑥공학
	㉠교육	㉡장애	㉢기타 분야					
1989	1							
1995					1			
1997	1							
1998	2							
1999	1							1
2000	3							
2002	2							
2003	4							
2004	2							
2005	2	1						
2006	2							1
2007	2		1				1	
2008	3		2					
2009	3							
2010	2		3	1				
2011	3	1						
2012	4				4		1	
2013	1			1	4			
2014	6	5	1	1	2	1		
2015	6	1	1	2				
2016	4			1				
합계	54(58.7)	8(8.7)	8(8.7)	6(6.5)	11(12.0)	1(1.1)	2(2.2)	2(2.2)

학술지 유형 분석 결과 의약학 분야의 연구는 ‘문해’를 더 이상 한글에 국한된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구강건강, 건강정보, 의료정보로 확장해서 각 영역에 적용하고 있었다. 교육과 장

에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학술지에는 2007년 이후 발표 되었다. 이는 성인문해교육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문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발표된 16개 연구 중 타학문이 11개로 성인문해에 대한 방송 등의 캠페인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개 중 5개가 장애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였으며, 논문 수가 교육계와 같은 수였다.

2012년부터 경기도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 한글 야학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엔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특히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연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주제

성인문해 연구주제는 내용 및 방법을 다루는 것이 2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현황 및 실태로 21.7%, 개념 및 인식이 14.1%, 국내 및 국외 사례 10.9%, 정책 및 제도 9.8%, 역할 및 발전과제 9.8%, 문해역사 5.4%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 및 실태, 개념 및 인식, 정책 및 제도를 다루는 연구는 그동안 문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주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교육대상과 내용에 반영되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문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 있어 학습할 수 있는 기초능력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각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2014년 한국 성인문해능력 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에서 구분한 수준2까지만 성인문해교육 정책으로 다루고 있을 뿐 수준3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문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3으로 성인문해력이 높아질 때까지 지속 될 것이다.

성인문해 교육내용은 기능문해, 건강문해, 농업문해, 정보화문해, 인터넷문해, 문해 프로그램 평가, 교재 등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문해가 기초생활문해로, 각 영역의 기초능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각 영역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학습 성장으로 연결된다. 또한 학습할 권리를 이행하는 문해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른 주제에 비해 현황 및 실태를 다룬 연구가 2014년에 많이 발표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문해교육의 실태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선천성 장애인의 경우 연령상 성인이 되었어도 한글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의 확산과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의 증대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장애인 문해교육이 연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 성인문해 연구주제 동향 분석

단위: N(%)

구분	①개념 및 인식	②역할 및 발전과제	③정책 및 제도	④국의 및 국내사례	⑤현황 및 실태	⑥내용 및 방법	⑦문해역사
1989		1					
1995					1		
1997	1						
1998						1	1
1999				1		1	
2000	2					1	
2002					2		
2003	1			1	2		
2004			1			1	
2005				2	1		
2006	1					1	1
2007			2	1		1	
2008			1	1	1	2	
2009				1		2	
2010	2				2	2	
2011	1		1		2		
2012		1	1	1	1	5	
2013	1					5	
2014	1	3	2		6	3	1
2015	2	2	1	2		1	2
2016	1	2			2		
합계	13(14.1)	9(9.8)	9(9.8)	10(10.9)	20(21.7)	26(28.3)	5(5.4)

4. 연구방법

성인문해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43.5%, 양적연구 34.8%, 질적연구 14.1%, 혼합연구 7.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방법 동향을 살펴보면 문헌연구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문해 연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문해 연구에 있어 문헌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론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영석(2014)은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에서 질적연구가 2009년 이래 2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인문해 연구는 질적연구를 2008년 이래 사용하고 있었고, 문해학습자의 특성으로 비취볼 때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연구는 전체의 1/3 이상(34.4%)을 차지하고

있다. 한글 문해학습자는 설문지 지문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양적연구의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4년 증가된 연구는 양적연구로 타학문 분야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장애, 의약학, 사회과학 등 타학문 분야의 연구는 아직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연도별 성인문해 연구방법 분석

단위: N(%)

구분	①양적연구	②질적연구	③문헌연구	④혼합연구
1989			1	
1995	1			
1997			1	
1998			2	
1999			2	
2000			3	
2002	1		1	
2003	2		1	1
2004			2	
2005	1		2	
2006	1		2	
2007			4	
2008	1	2	1	1
2009	2		1	
2010	2	2	2	
2011	1		2	1
2012	5	2	1	1
2013	3	2		1
2014	10	1	5	
2015		4	4	2
2016	2		3	0
합계	32(34.8)	13(14.1)	40(43.5)	7(7.6)

5. 연구대상

성인문해 연구대상은 이론 및 정책이 46.7%, 문해학습자가 41.3%, 문해교사 또는 전문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문해 연구는 이론 및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해학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인문해 연구대상이 문해학습자보다 이론 및 정책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성인문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해교육의 이론 및 정책의 발전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

다고 인식된다. 또한 사회, 역사적 환경변화는 문해에 대한 개념과 그 중요성을 변화시켜 왔다. 문해가 단순히 글자익히기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의 중요한 기초학습으로 인식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신미식(2007)은 한국의 문해교육 정책을 도입기(해방 후~1959년), 암흑기(1960년~1980년대말),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1980년대말~2005년), 재도약기(2005년~)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문해’란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와 재도약기 시점이다. 문해는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초학습이다. 그러기에 문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암흑기를 지나고 재도약을 위해서 이론 및 정책에 대한 연구에 주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8> 연도별 성인문해 연구대상 분석

단위: N(%)

구분	①문해학습자	②문해교사 또는 전문가	③이론 및 정책
1989			1
1995	1		
1997			1
1998			2
1999			2
2000			3
2002	1		1
2003	2		2
2004			2
2005	1		2
2006	1		2
2007	1		3
2008	2	1	2
2009		2	2
2010	4		2
2011	1		3
2012	6	2	1
2013	4	1	1
2014	9	3	4
2015	4	1	5
2016	1	1	3
합계	38(41.3)	11(12.0)	43(46.7)

문해학습자는 노인이 주류를 이루고, 장애인, 여성, 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노인, 여성결혼 이주민 등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도 있어서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각각의 연구대상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문해연구에 있어 이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문해학습자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양적연구 중 박상현, 한상훈(2016)의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아개념이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문해, 정보화문해, 장애인 대상 문해 실태를 다루고 있었다. 박상현, 한상훈(2016)의 연구에서는 조사요원을 연구자, 기관담당자 등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문해교사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론 및 정책과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동안 이론 및 정책,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던 연구에서 문해교사 또는 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해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문해연구의 방향은 그동안 비문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다가 문해교사 및 전문가 대상의 연구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한글문해의 경우는 특성상 학습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 힘들기에 문해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해교사 및 전문가 대상 연구는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와 등재 후보지에 발표된 성인문해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해’, ‘문해교육’ 등의 키워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에서 1989년부터 2016년 7월에 검색된 성인문해 관련 연구물 92건에 대해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문해 연구동향을 위해 연구발표 연도, 학술지 분야,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다섯 가지 대분류 기준을 정하고, 세부 분류기준의 경우 연구주제, 연구대상의 경우 성인문해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성인문해 연구 증가에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성인문해 관련 연구는 1989년 처음 발표되었고, 확산된 시점은 2014년이였다.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해’ 준비시기, 국가에서 성인문해에 대한 지원의 재개와 확대, 문해에 대한 방송 등 각종 캠페인이 있던 시기에 성인문해연구가 발표되거나 증가했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지원의 활성화가 성인문해 연구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둘째, ‘문해’ 개념의 확대가 사회 각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해’ 라는 용어가 타학문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5년이었던. 그리고 2007년 이후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학문적 접근과 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 중 절반 이상이 타학문 분야였다. 2014년 발표된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장애 분야가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4년 장애인 대상 문해 연구 급증, 2016년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조항 신설, 경기도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볼 때 장애인 대상 문해 연구는 앞으로 더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2014년은 문해에 대한 캠페인이 강화된 시기임으로 사회분위기 조성이 연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해 캠페인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주제의 핵심은 문해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라 할 수 있었다. 특히, 내용 부분은 인터넷, 정보, 건강 등 학습할 권리를 이행하는 문해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초생활문해 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넷째, 성인문해 연구대상은 그동안 이론 및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성인문해의 당사자인 문해학습자와 문해교사를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향후 문해학습자와 문해교사 및 전문가를 다루는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성인문해 연구동향 분석은 향후 문해교육에 대한 연구와 문해교육 정책에 대한 제언을 구하는데 의의가 크다.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해교육에 대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문해 연구에 있어 문해교사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 문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교육철학, 이념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해 본다. 지금은 국가차원의 문해교육제도가 정착되었다. 이제는 문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문해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이들에 대한 연구는 양질의 문해교사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학계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해교육을 생애단계별로 접근하기 위한 체제와 그에 따른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 이전에 유아기 문해 관련 연구의 경향분석이 최은영, 이지현(2009)에 의해 발표된 바 있었다. 유아동, 청소년, 성인기 등 생애 단계별 문해 연구동향과 장애인, 다문화 등 계층별 문해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생애 단계별, 계층별 문해교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전체 대상을 통합하는 문해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개인이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국민 기초교육

로 문해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셋째, 기초능력 함양을 위해 문해를 기본교육으로써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농업과 건강, 의료, 보건,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이 학생이어서 연구결과로 제시되지 못했지만 디자인, 시각 등 미술 분야에서도 문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문해 개념 인지는 평생교육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는 ‘문해’를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자에 대한 기능교육이 아닌 각 영역의 기초능력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해준다. 헌법이 정한,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어떤 영역에서건 소외되는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시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각 영역의 맥락에 적절한 문해의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각 영역의 문해의 수준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동향 분석은 동향분석의 의미와 더불어 문해교육이 더 이상 일부 할머니들의 한글교육으로 축소 인식되고, 이를 세간의 가십거리로 남겨둘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해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문해학습자 그들의 지나간 시간이고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학력인정제도를 포함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생학습도시 또는 비평생학습도시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야학과 민간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해교육의 현실이다. 문해교육이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014년 성인문해능력 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 하우
- 곽삼근, 박현옥, 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 : 1982~2012년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63-92.
- 곽삼근, 최윤정(2005). 학술지를 통해 본 한국 평생교육학의 연구동향. **평생교육학연구**, 11(1), 91-113.
- 김영석(2014).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3년) : 「평생교육학연구」와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3), 1-32.
- 김원경, 전제아(2011). 한국 노인교육 연구 동향 : 2000년 이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4), 235-263.
- 김진화, 고영화, 성수현(2007).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4), 89-122.
- 노병운(2015).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해방후 문해교육(文解教育)의 역사적 조명. **한국사상과 문화**, 76(-), 229-259.
- 박상현, 한상훈(2016).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아개념이 일상생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7(1), 107-127.
- 배천웅(1989). 성인문해교육의 방향. **한국교육**, 16(1), 210-227.
- 신미식(2007).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45(-) 261-283
- 신미식(2010). **하나의 담론으로서 한국 문해교육의 비판적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5(-), 273-293.
- 양명희(2013). 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 분석 연구. **인문연구**, 67(-), 319-348.
- 엄 훈(2012). **학교 속의 문맹자들**, 서울: 우리교육
- 오혁진, 김미향(2010). 한국 사회교육사의 연구동향 및 성과 검토. **평생교육학 연구**, 16(4), 191-221.
- 오혁진, 허준(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7(4), 265-291
- 윤옥한(2015). 평생교육 20년(1995-2014) 연구동향 분석 :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2), 1-22.
- 이석진, 기영화, 김남숙(2012).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 **평생교육학 연구**,

- 18(4), 65-85.
- 이지연(2015).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국내외 성인교육학의 최근 연구동향 고찰. **Andragogy Today**, 18(2), 169-192.
- 임송자(2014). 미군정기 우익 정치세력과 우익 학생단체의 문해·계몽운동.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79(-), 183-230
- 정대용, 김영화(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해교육 경험이 생활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6(4), 137-157
- 정지웅, 김지자(2013). 문해교육제도가 학습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평생교육**, 1(1), 95-118.
- 천성호(2009). **한국야학운동사 : 자유를 향한 여정 110년**. 서울: 학이시습
- 최운실(2006).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성인기초능력 개념 모형과 연구동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2(4), 225-251.
- 최은수, 김성길, 허영숙, 박진홍(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2(4), 167-183.
- 최은영, 이지현(2009). 유아기 문해 관련 연구의 경향분석: 1990년 이후 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171-194.
- 한국교육개발원(1989).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1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문해교육협회(2005). **한국의 문해교육**. 서울: 문음사
- Bhola, H. S.(1990). World trends and issues in adult literacy: Update, 199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35(-), 1-30
- Ulrike Hanemann(2015). Lifelong literacy: Some trends and issues in conceptualising and operationalising literacy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61(3), 295-326.
- Nicholas Gara(2012). Lifelong learning as a reference framework for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Second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Springer International Handbooks of Education 26). New York
- Rosa McKenna & Lynne Fitzpatrick(2004). *Building sustainable adult literacy provision: A review of international trends in adult literacy policy and programs-support document*. Australia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Mikulecky, Larry(2003). Trends influencing adult literacy instruction and research in 2003.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48(-), 1-13.

- 논문 접수 2016. 10. 31 / 수정본 접수 2017. 4. 30 / 게재 승인 6. 25
- 김명숙 : 현재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평생교육&HRD 전공. 안산시, 안양시 평생교육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교수로 일했으며, 현재 하남시평생학습관 사무국장으로서 재직 중. 주요관심분야는 일상학습, 학습공동체, 성인학습 등임.
- 어재영 : 현재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평생교육&HRD 전공, 진천군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 학습공동체 등임.
- 이성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성인계속교육학). 현재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겸 교육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임. 한국NLP상담학회 학회장,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무형식학습, NLP, 셀프리더십, 국가인적자원개발 등임.

Abstract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Adult Literacy in Korea

Kim, Myoung Sook(Ajou University)

Eo, Jae Young(Ajou University)

Yi, Sung Yup(Ajou University)

This study is for an analysis of trends on adult literacy in Korea since the term 'literacy' was used. We have searched for studie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s or nomina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by putting the key words 'literacy' and 'literacy education' in the search engine of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studies on adult literacy started in 1989, and have continually been studied until July 2016. Four selections and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Ninety-two (92) cases of the study related to 'adult literacy' have been presented. Significant numbers of the study have been actively presented since 2014. Research on adult literacy have been published the most on the education journals. Research topics are categorized in seven types: Most of the topics are related to the contents and methods. The status and situation, concepts and awareness, foreign and domestic practice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role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literacy history are studied in rank order.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combined research method are used in order. The greatest number of the study object is theory and policy. The literacy learner is ranked second; the literacy teacher or expert is ranked in order.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there are some tasks we face: First, we shoul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ents and methods in adult literacy, research and analyze the education philosophy and ideology of literacy teachers. Second, we should analyze the trend on the literacy education dealing with all subjects in whole life i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hird, we should teach adults not only the basic competence but also the literacy led by the governmen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national responsibility. Finally, we should realize adult literacy as a national policy and do a national complete enumeration survey and not just a sample survey to confirm the number of illiterates.

* Key words: Literacy, research of trends, adult basic competencies, lifelong learning